

'YWCA 1922 장학금' 후원자 1922명을 모십니다

1922년 4월 22일 '암매한 여성사회에 빛이 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이 모여 YWCA를 창설했습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창립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고자 'YWCA 1922 장학금'을 신설합니다.



100주년 기념 장학금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20명씩 장학금 지급
- 1922명의 후원자, 100명의 장학생

모금방법

- 1922명의 후원자가 매년 1만원씩 5년 후원
-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참여문의

연락처 02-774-9707(한국YWCA연합회, 장학위원회)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권선각서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7년 4월호
 April
 Vol.539

이달의 생각

정직한 '고백'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획 '대선과 YWCA'

탈핵, 성평등, 청년정책
 YWCA 유권자선언

이달의 이슈

'세월호'와 우리의 선택

이달의 현장

기독교인에게 여성주의가 필요한 이유



YWCA 70년의 기록, '회보'부터 '월간'까지 1947년 창간해 통권 538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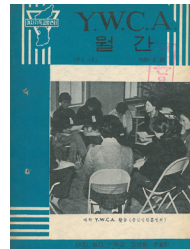
YWCA 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소식과 정보를 회원들에게 알린 것은 '회보'였다. 한국YWCA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조직을 재건한 후 1947년 9월 최초의 회보 <YWCA 소식>을 창간했다.

초기 회보는 직접 필경(筆耕 등사원지에 글씨를 쓰는 것)을 하여 등사인쇄로 제작했다. 철판으로 꼭꼭 눌러쓴 정감 가는 글들이 YWCA 활동과 회원들의 소식을 전했다. 인쇄, 제본 시설이 열악하고 용지도 부족했던 시절임에도 단정한 필체와 문장,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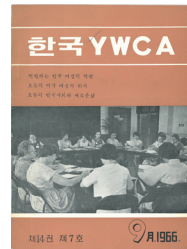
1959년부터 <YWCA 월간>이란 제호로 바꾸고, 이듬해부터 인쇄발간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1961년 9월 다시 등사인쇄로 되돌아갔다. 1965년 9월 <한국YWCA>로 제호를 변경하고, 다음해인 1966년 5월 월간 <한국YWCA>로 문화공보부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했다. 그해 9월부터 국판 크기로 인쇄발간 체제를 다시 갖췄고, 현재에 이르렀다. 2017년 3월 통권 538호를 펴냈다.

그동안 회보는 YWCA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한 매체였다. 안내서, 연감, 뉴스레터 등 다양한 간행물이 있었지만 창간 이후 70년간 지속된 매체는 회보가 대표적이다. 회보창간 70년의 역사 속에서 회원 활동을 중심으로 연합회와 회원YWCA의 주요활동을 소개하면서 매달 다양한 소식을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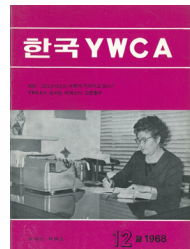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YWCA 운동과 핵심정책을 해설하고, 시사흐름과 이슈를 분석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YWCA 정책지이자 공식 소식지로 자리잡았다. 전국 52개 YWCA 회원들과 290여개 부속시설을 비롯해 학교, 교회, 문화·교육·여성 등 시민단체, 관공서, 복지시설 등에 배포되고 있다.



1959년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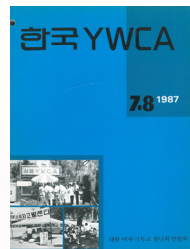
1966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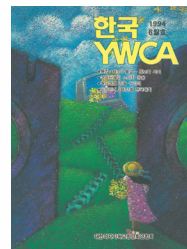
1968년 12월호



1970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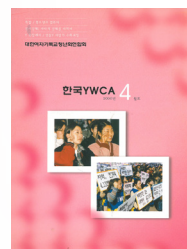
1987년 7·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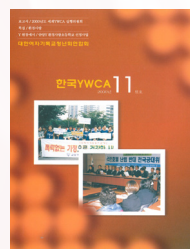
1994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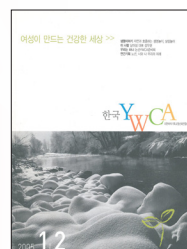
1998년 12월호



2000년 4월호



2000년 11월호



2005년 1·2월호

2017.4 한국YWCA



표지이야기
광주YWCA 회원들이 4월 11일(화) 광주시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는 내용의 YWCA 유권자선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전남매일)

2017년 5월 주요일정

- 5월 15일**
'길 위의 평화학교-한라에서 백두까지' 제2차 포럼
- 5월 18일**
씨티강사 교육
- 5월 20일**
2017 여성평화결기
- 5월 24일**
2017 여성평화심포지엄
- 5월 25일**
제4차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

제53권 제3호 통권 539호

2017년 4월 19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백혜진·신선·정린·정선경
 조한나·이경순·최수경·황혜숙
 편집 박은실·신미희·이기원·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 04 **이달의 생각** 정직한 '고백'으로 새로운 '시작'을 | 이명혜
- 05 **말씀 묵상**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 임향자
- 기획 대선과 YWCA**
- 06 **기획①** YWCA 대선의제 : 탈핵, 성평등, 청년정책 | 중점운동국
- 08 **기획②** 정책선거 이끄는 YWCA 유권자운동 | 대선대응TF
- 09 희망 세상을 만드는 YWCA 유권자선언
- 10 **이달의 이슈** '세월호'와 우리의 선택 | 문미란
- 12 **칼럼** 유엔을 통한 국제연대, 한국YWCA 도전과 과제 | 김은경
- 14 **성평등** 한일 '위안부' 합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 천유란
- 16 **강연** 청산하지 못한 친일, 분단과 전쟁이 낳은 한국군 '위안부' | 손서정
- 18 **이달의 현장①** 한국YWCA 창립95주년 기념예배·기념식 열린다 | 편집실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TV프로그램 수상작 | 편집실
- 20 **이달의 현장②** 기독교인에게 여성주의가 필요한 이유 | 최지영
- 22 **이달의 현장③** 2017 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포용 회담 | 함희경
[스팟 인터뷰] 도로서 씨티재단 프로그램 총괄 | 홍현정
- 24 **이달의 현장④** 제61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평화비 모금' 이야기 | 문윤희
[만남]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 손지수
- 26 **원로에게 듣는다** 유은옥YWCA 증경회장 | 편집실
- 2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도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 이윤경
- 30 **연합회 소식**
- 33 **회원YWCA 소식**
- 42 **일정** 5월의 한국YWCA

정직한 '고백'으로 새로운 '시작'을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국YWCA 창립 95주년은 100년을 향한 한국YWCA가 설립 목적을 되새겨보면서 95년 역사에 대한 성찰과 고백, 회개의 시간을 통해 100년을 넘어 계속될 YWCA 역사 속에서 그 목적이 이어지도록 할 시대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바르게 보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청년 정신과 자원 봉사 정신으로 이 땅에 YWCA를 세우고 헌신해왔던 선배들의 초기 정신을 되새겨 정의, 평화, 생명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새로이 확인하고 결단하는 것은 YWCA 역사를 이어가야 할 우리 후배들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국YWCA는 95주년의 주제를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고백(告白)하고, 100주년을 향해 다시 힘차게 나아가자는 우리의 다짐과 결의를 담았습니다.

95년 전, 우리 선배들은 “어둡고 우매한 여성들이 생명의 활로를 알지 못하고 속박과 압제의 깊은 구덩이에서 절규하되 이를 구원할 만한 완전한 기관이 없음을 크게 개탄하여” 이 땅에 YWCA를 조직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하렝회’에 모여 YWCA 결성을 결의했을 때 그 열정과 소망, 헌신의 다짐을 떠올려 봅시다.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의 탄생은 기독교여성들의 소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으로 95년을 이어올 수 있던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일도, 부족하고 부끄러워 지우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YWCA를 세우신 목적을 잡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시간, 정직한 고백의 시간이 95년 전 뜨거웠던 사명의 횃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 회원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탈핵생명 세상, 성평등한 정의 세상,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평화통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돌봄의 가치가 인정되는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임을 믿고 기도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다짐과 실천에 모두 함께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마음으로 한국YWCA의 100년을 향하여 함께 손잡고 힘차게 걸어 나아갑시다. YWCA와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임항자
목사·하늘꿈학교 교장

이사야서 40장 1~5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께에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에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에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오랜 사역을 해온 저도 위로가 간절합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통로를 찾으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라는 말씀이 보였습니다. 위로는 누군가 내 마음을 공감해줄 때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 탈북 청소년이 제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며 같은 언어를 쓰는 어린 학생임에도 그들의 삶과 가치관은 낮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애통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폐쇄된 곳, 체제유지를 위해 계급과 공포로 다스리는 곳, 윤리보다는 생존이 최고의 덕목이 되어버린 곳, 그곳은 우리의 북한 형제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의 결핍은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트라우마, 탈북과정에서 겪은 인권유린으로 인한 지식의 결핍, 인성의 결핍, 영적 결핍은 처절했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때 받지 못했고,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했고, 국가보호를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한 이들은 깊은 상처로 아픕니다.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전인교육을 통해 자유 민주 통일과 북한 교회 회복을 이루는 일꾼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는 삶으로 예수를 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선포하고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낮에는 교사와 행정으로 학교를 섬기고 저녁에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학생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변화? 당연히 있지요. 심한 혼란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 과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라는 선생님의 삶의 고백을 학생들이 받아들입니다. 굳게 닫혔던 아이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위로는 아이들을 스스로 일어나게 합니다. 올바른 삶의 목표와 방향도 잡습니다. 자신들이 고향에 복음을 전하고 재건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평탄케 하는 일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탈핵, 성평등, 청년 56개 과제 제안하다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장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본다. 조기대선을 치르다 보니 각 정당별 후보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다. 5년 임기의 국가운영 정책은 잘 마련되었을까? 18대 대통령처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 선거만큼은 정책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YWCA는 설립 정신인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탈핵, 성평등, 청년 3개 분야 56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6개 핵심정책에 대해서는 전국 52개 회원YWCA 이사, 위원, 실무자 등 5천여명의 연명요구서와 함께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탈핵 : 에너지전환사회 구축

탈핵 분야 정책목표는 '에너지전환사회 구축'이다. 신규핵 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노후핵발전소 폐쇄, 국가 방사능 방재 대책 전면 재수립, 핵발전 진흥제도 폐기와 가동 중인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에너지전환과 자립,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급식 체계 구축 등 5개 부문 27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1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노후핵발전소 폐쇄 : 신고리 5·6호기 전면 백지화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경주지진이 일어났다. 최근까지 600회를 넘는 여진이 계속되면서 활성단층 위에 세워진 원전(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전력수요 과다에 측으로 전기는 남아돌고 있다. 따라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서 발표한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YWCA는 30km 반경에 인구 300만명이 인접해 있는 부산 기장지역에 지으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2 국가방사능 방재대책 전면 재수립

방사능 방재대책 전면 재수립을 요구한다. 평상시와 비상시 방사능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 상설전담기구를 구성해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피해 시뮬레이션, 대피훈련 일상화, 사고에 대한 대피로 확보와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지정, 대피관련 기준 등의 재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가방사능 방재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성평등 : 성평등 사회 구현

성평등 분야 정책목표는 '성평등 사회 구현'이다. 5개 부문 20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위한 일자리와 복지연계 시스템 구축, 여성폭력 근절과 전시성폭력 문제 해결,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 구축, 정책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평화구축과 통일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등이다.

3 정책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 동수민주주의 실현

성평등은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



YWCA는탈핵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음세대 청년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평등한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극심한 격차를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와 정치리더가 필요하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도입 전 9명(3%)에 불과했던 여성 국회의원은 현재 299명 중 51명(17%)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율인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YWCA는 정책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동수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한다.

4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 구축 :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남녀임금격차 해소

여성의 교육기회는 높아졌으나 노동시장의 노동력 공급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실현이 시급하다. 교육기회의 남녀격차는 크게 줄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년 전과 거의 같다. 2015년 기준으로 57.9%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31위로 하위수준이다. 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10% 정도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남녀간 임금격차도 젊은 층에서는 10%대이지만 평균 3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남녀임금 격차는 현존하는 불평등의 가장 명확한 증거이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늘리고, 남녀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청년 : 청년이 행복한 사회

청년분야 정책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사회'이다. 18세 선

거권 보장, 청년 일자리 · 고용 · 근무환경 관련 법률 개정 및 법집행 강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확대, 청년 노동환경 지원 등 4개 부문 9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5 18세 선거권 보장

대한민국의 18세 청년들은 64만여명이다. 이들은 국민의 4대 의무(근로, 납세, 국방, 교육)는 지는데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아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6 청년일자리 확대와 노동환경 개선

고용 없는 경제성장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청년체감 실업률이 20%를 넘었고, 각종 일자리 대책은 일회성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후남형 청년구직 수당'을 지급하면 구직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다.

청년들의 고용질서 위반행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 인원확충, 나쁜 일자리 검색제 도입,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로 청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촛불' 민심에서 확인된 것처럼 2017년 한국사회는 문명 전환의 시대를 맞았다. '탈핵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음세대 청년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평등한' 국가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새로운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 YWCA 정책을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실천은 선거 참여이다. 5월 9일, 투표하러 가자!

5천명 정책요구서, 50인 회의, 시민발언대 운영

한국YWCA
대선대응TF팀



광주YWCA 회원들이 4월 11일 총장로 우체국사거리에서 유권자선언을 발표하고 'YWCA 회원들이 원하는 대통령상'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정책 선거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노동, 복지, 경제, 외교, 환경,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은 짧게는 5년 임기동안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길게는 우리 사회 미래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국민은 대통령 후보자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살피고, 그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국YWCA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 52개 회원YWCA 10만 회원의 뜻을 모은 탈핵, 성평등, 청년 정책이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당선자의 정부 수립 이후 정책에 구현되도록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한국YWCA 대선 핵심정책 6개에 대해 전국 10만 회원을 대표하는 5천여명의 회원대표가 서명한 'YWCA 정책 연명요구서'를 제시한다. 전국 52개 YWCA 본부와 부속시설의 선출직 이사과 임명직 위원, 채용직 직원 등 5천여명이 4주간 탈핵, 성평등, 청년분야 6개의 핵심정책에 연명한 요구서를 대선후보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6개 정책은 △탈핵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국가방사능 방재대책 전면 재수립 △성평등 :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남녀임금격차 해소 △청년 : 청년 일자리확대 및 노동환경 개선, 18세 선거권 보장이다.

이어 '대선후보 정책 분석을 위한 50인 회의'를 열고 회원 참여 정책토론과 유권자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지역위원회별 시범YWCA가 10인의 정책단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꾸려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한 뒤 YWCA 요구정책과 비교해 정책제안도 만들어 보게 된다. '50인 회의' 시범YWCA는 광주YWCA(서부), 부산YWCA(동부), 서울YWCA(북부), 안양YWCA(경기), 청주YWCA(중부)가 맡았다.

마지막으로 회원YWCA 유권자 시민운동 전개다. 10만 회원의 요구가 담긴 YWCA 정책실현을 위해, 여성과 청년층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회원YWCA가 시민발언대를 마련해 '희망세상을 만드는 YWCA 유권자선언'을 낭독하며 투표를 독려하게 된다. 52개 회원YWCA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이나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는 내용을 발

표하는 시민발언대 운영으로 YWCA 대선정책을 알리고 19대 대선이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자는 게 목표다. 시민발언대를 통해 회원들의 절실한 바람을 귀담아 듣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여성과 청년층의 투표를 독려해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YWCA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만큼은 유권자가 선출한 대통령을 끝까지 자랑스러워하는, 그래서 살맛나는 희망세상의 믿음을 이어가도록 5월 9일 선거일까지 희망의 발언을 계속할 것이다.

희망 세상을 만드는 YWCA 유권자선언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난 우리 YWCA 회원들은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끝까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대통령을 자랑스런 인물로 이야기하며, 우리의 아픔을 나누는 그 대통령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살맛나는 희망세상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고 싶습니다.

우리 YWCA 회원들은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 하나,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 하나, 우리사회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 하나, 핵 없는 세상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 하나, 차별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 하나, 폭력을 넘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 하나, 불안을 넘어 안전한 세상을 일구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 하나, 본인의 갈등과 대립을 허물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 하나, 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 하나, 국민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 하나, 진심을 다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 YWCA 회원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YWCA 회원들은 희망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4월 6일
한국YWCA연합회

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군산직할지부

'세월호'와 우리의 선택



문미란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왜 3년이나 걸렸는가

2017년 3월 23일, 1073일 만에 물위로 올라오는 세월호를 지켜보느라 새벽부터 TV 앞을 떠나지 못했다. 2015년 4월 16일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던 중 영국 테러뉴스에 가슴이 쿵했다. 런던에 체류 중인 아들에게 안부전화를 걸어 무조건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잠에서 깬 아들은 놀란 엄마 달래가며 서로 위로하곤 전화를 끊었다. 부모자식간은 그런 거다 싶다.

하물며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기까지, 그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남은 시간들... 그 모질고 잔인한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감히 그 애통함과 억울함의 깊이를 알 수는 없지만, 슬프고 그림고 이유 없이 죄스럽고, 얼마나 아이를 품에 안고 뽀뽀 얼은 몸을 녹여주고 싶었을까?

3년여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면서, 촛불집회가 청와대 앞 200미터까지 처음으로 허용되던 날이 떠올랐다. "여기까지 오는데 왜 3년이나 걸려야 하느냐"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던 세월호 가족들의 절규가 생각나

면서 그 설움인지, 내 설움인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놓고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구조 때문이라느니, 취약한 제도와 운영체제 때문이라느니,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느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이 제기되었지만, 지나온 시간만큼 치유되었어야 할 세월호의 아픔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갔다. 결국 지난 겨울 '촛불'로 타올라 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가라앉은 진실'을 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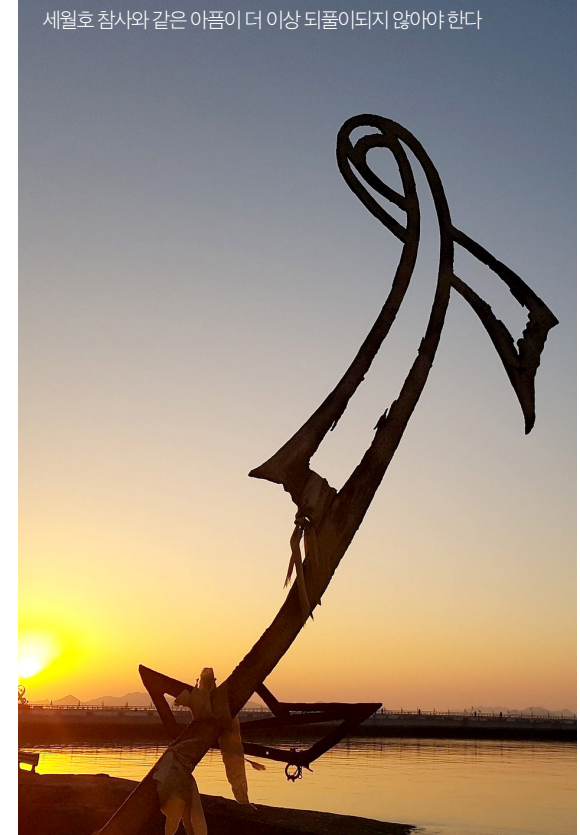
2016년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주말마다 촛불집회에 나가 혹독한 추위와 싸워가며 어두운 겨울을 몰아내고 새 봄을 되찾은 시민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날개가 있는 것은 추락하고, 가라앉은 진실은 떠오르기 마련이라는 믿음이었을 것이다. 부정부패,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져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을 억압하고, 조롱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며 위로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나라, 진정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는 우리 YWCA가 추구하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가 실종되어 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힌 촛불 시민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 가라앉은 진실의 규명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들의 힘으로 생명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과 억압을 부정하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은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집회 내내 울려 퍼진 구호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주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길 봉사자를 뽑는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이 주권자이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유권자 선택을 받아 봉사하기로 약속하는 정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그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참여

선거분위기가 과열될수록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부를 선택하는 대선이 지난 겨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조차 잊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선거는 인기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한 게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인 국민은 자칫 인기 정치인의 팬덤이나 맹신도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공약은 뒷전이고 검증은 핑계로 온갖 구정물 같은 네거티브들이 정치판을 뒤덮는다. 후보들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왜 지지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럴수록 정치소비자로서 유권자는 주권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정치인의 인기몰이이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논란이 난무하는 언론보도에 휘둘리지 않고, 대통령 후보들이 풀어놓는 정책에 귀기울여야 한다. 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니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논리다. 이제부터는 헛된 공약, 지켜지지 않는 공약은 유권자이자 정치소비자의 감시로 밝혀지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의해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로설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우리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현명한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유엔을 통한 국제연대, 한국YWCA 도전과 과제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성평등위원회 위원장

3월 11일(토)부터 17일(금)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61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열렸다. 이 기간엔 본회의를 비롯해 각국 정부, 유엔기구,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준비한 부대행사와 더불어 뉴욕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시민단체들의 워크숍 등 수백여개의 다양한 모임이 열린다.

유엔은 올해 여성지위위원회 우선주제를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Women’s economic empowerment in the changing world of work)로 정하고,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1 공사영역의 남녀임금격차: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룰 것인가?
- 2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기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와 도전
- 3 비정규직 노동: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 4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좋은 일자리: 2030년까지 여성을 위한 여덟 번째 지속가능발전 목표¹⁾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네 가지 주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국가 중 10년째 최저수준의 남녀임금격차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도전 그 자체이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긴급 현안임이 분명하다. 의미 없는 대안제시에 익숙한 우리

1)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로서는 답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실현과정과 행위자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클 수 있다.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을 만나는 일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공동과제에 대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확인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기회가 된다.

북유럽 방식의 성평등, 의식적 노력의 결과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은 중형무진 회의장을 누비며 세계 여성지도자들의 시선을 모은 ‘남성지도자’, 아이슬란드의 성공 사례와 제안을 쏟아냈던 소르스테인 비글룬손(Thorsteinn Viglundsson) 사회평등부 장관이다. ‘북유럽 방식의 성평등: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그는 “여성유권자들은 왜 이런 (차별적) 상황을 그냥 놔두느냐”고 물었다. 정부대표 발언에서도 그는 아이슬란드가 유리천장을 깨고 남녀격차를 해소하며 성평등 모범국가가 된 것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2030년까지 50:50의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역량 강화에 대한 확신은 빈곤, 기아를 극복하고 땅과 바다의 풍요로움을 회복하는 열쇠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4월 4일 아이슬란드 의회는 세계 최초로 남녀동등임금 인증 법안을 발의했다. 2020년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근로자 25명 이상 모든 조직은 성별, 인종,



제61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개막식 모습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최종 목표는 현재 14%인 아이슬란드의 남녀임금 격차를 2022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2013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일임금의 날’ 제정관련 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 극복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당사자들은 10년 세월을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뒤늦은 대처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정책으로 한국 사회 여성차별 현실은 저출산과 인구절벽으로 연결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성평등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Ignorance is Violence!(무관심이 폭력이다) 문제를 외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 한국YWCA의 과제는 이런 국제사회 변화와 한국사회의 답답한 현실 사이에서 더 분명해진다. 한국YWCA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은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행동에 옮기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통해 여성과 소녀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으로 해결할 5개 정책분야를 제안했다.

- 1 성인지적 책임성과 비차별적인 법, 제도, 규범의 보장
- 2 성평등 실현과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 3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여성의 온전하고 평등한 참여와 리더십 강화
- 4 성인지적 통계의 지속적인 수집과 보완
- 5 성평등과 여성·소녀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국가기구 및 제도 강화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지난 세대의 노력이 심각해지는 여성혐오, 성폭력 문제로 좌절과 낙담으로 퇴색할 즈음, 덴마크 여성장관의 조언이 일침을 가한다. 북유럽의 성평등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100년의 시간을 거치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라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해왔다고 했다. 100년의 투쟁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성평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분석하고, 제안하고, 외치고, 연대하고 변화해야 한다. 변화를 만드는 연대의 힘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확장되고, 다시 지구촌 여성들에게로 뻗어나가야 한다. 한국 사회 여성문제에 대한 YWCA의 책임과 아시아 자매들이 마주한 또다른 도전, 세계YWCA를 통해 던져진 통합과제 등 창립 95주년을 맞은 YWCA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얼굴로 지구촌 여성들과 마주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천유란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간사

YWCA는 청소년회원들로 이뤄진 'Y-틴 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바로알기 운동을 적극 펼쳐왔다. 올해는 전시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폭력의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 여성인권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여성평화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세기 벌어진 대표적인 전시 성폭력이자 국가전쟁 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자 인권을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일이다. 지난 3월 31일(금)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위한 전략워크숍' 요지를 싣는다. 이날 워크숍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 행동>이 주관했다.

'2015한일합의'는 비구속적 정치합의

일본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다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끌고가 성노예를 강요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법적 책임과 공식사죄는 무시한 채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후 곧이어 그것을 뒤집는 '망언'을 거듭해왔다. 아베정부는 일본 교과서에 이어 전 세계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지우는 사업을 계속하며, 이제는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월권까지 행사하고 있다. 가해국 일본은 이러한 비열한 공작들을 즉각 그만두고 국가 차원에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의 의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5한일합의'에서 일본은 이 모든 사안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았다.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

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기본적으로 양국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조약으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실제 양국 모두 당시 합의가 '약속'일 뿐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적인 조약체결에 수반되는 절차의 이행도 없었다. 즉 한일정부 위안부 합의는 이른바 공동성명, 정치적 선언, 신사협정, 양해각서 등과 같은 국가간 '비구속적 합의' 또는 '정치적 합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합의 내지 약속은 형식에 관계없이 일반적 신의칙(pact sunt servanda) 원칙에 의거하여 성실히 지켜져야 한다. 한국에 의한 일방적 파기의 경우 일본의 공세에 유리한 입지를 줄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외교 신뢰도가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한일 양국이 상호 합의하여 기존 합의를 수정 또는 파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지금 두 나라의 국내상황을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Y-틴 회원들이 제66차 유엔NGO컨퍼런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평택YWCA 키다리학교가 평택 '평화소녀상' 제막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체험을 하는 모습

제대로 된 협상이 다시 필요하다

'2015한일합의'의 무효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다. '2015한일합의'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외교참사 중 하나로 평가되고 각 정당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합의무효를 외치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국가간 합의를 쉽게 무를 수 없다며 합의이행만 고수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죄, 그리고 배상이다. 그 핵심이 빠진 합의는 한일정부의 표현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아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제외한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제대로 된 협상이 필요하다. 명시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될 다음 정부가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비난과 공세는 막을 수 없겠지만, 이 선택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합의무효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며, 진상규명과 함께 올바른 역사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게는 자료발굴과 공개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일본의 역사교육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정체불명의 출연금 10억엔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은 애당초 설립의 근거가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접촉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중국, 필리핀, 북한 등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연대해 일본을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과거사 문제를 소홀히 넘길 수 없다. 두 문제는 선후가 아닌 병행하여 풀어가야 할 고도의 정책적 판단,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70년 전 사건을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더욱이 2017년 4월 현재 이순덕 할머니의 별세로 남아있는 피해자 할머니는 38명뿐이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회의원에게 대안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부재된 '2015한일합의'를 두고 더 이상 정부와 국민들이 이분적인 행보를 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평화적인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국회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감시, 지지하는 활동 역시 적극 펼쳐야 한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 분단과 전쟁이 낳은 한국군 '위안부'

정리 : 손서정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간사



4월 6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평화·통일위원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평화학교 :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 1차 포럼이 열렸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 통일과 평화, 여성과 이산가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의 발표로 포럼이 시작되었다. 김 교수는 '분단과 전쟁의 한반도, 여성의 삶과 희망'이란 주제로 분단과 전쟁이 낳은 한반도 여성들의 아픈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사문화부터 살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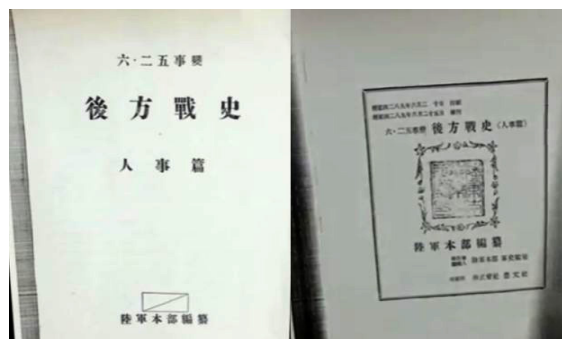
김귀옥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누가 언제 만들고, 어떻게 시행했을까

이날 가장 주목을 끈 내용은 한국군 '위안부'이다. 분단과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들의 사례를 설명하는 중 한국군 '위안부'라는 단어가 나오자 참석자들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의 성노예로 착취했던 사실은 익히 알고 있지만, 한국군 '위안부'라는 개념은 생소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언제 한국군을 위한 '위안부'를 만들고, 어떻게 시행했다는 것인가.

한국 현대사에는 세 종류의 군위안부가 존재한다. 첫째,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이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동안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여성을 강제 징집하였다. 두 번째가 한국군 '위안부'로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을 위안하기 위

해 동원된 한국 여성이다. 세 번째가 미군 '위안부'이며 흔히 '기지촌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윤락행위 방지법이 발효 중이었음에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위해 한국 정부와 미군이 공식적으로 묵인하며 관리해왔다. 국가 관리하의 성매매업인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문제도 이미 제기되어 왔다.



한국군 '위안부'를 알린 서울 육군본부에서 1956년 집필한 '후방전사'

생소한 단어였던 한국군 '위안부'는 서울 육군본부에서 1956년 집필한 <후방전사>라는 일종의 군대 역사자료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1951년경 한국군 위안소가 설치되어 정전협정 후인 1954년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특수위안대의 명칭은 '육군본부 후생감실 특수위안대'이며, 그 '특수위안대'라는 호칭은 일제가 사용한 '군용 특수위안소'에서 나왔다. 그 피해자 역시 한국 여성이다. 또한, 한국군 '위안부'의 설립 취지로 "사기양양은 물론 전쟁사실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성에 대한 동경에서 야기되는 지장을 초래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했다고 그 목적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특수위안대는 지금의 휴전선 부근인 강릉, 춘천, 속초 등에 배치되었으며, 군인들이 휴가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서울에도 3곳을 배치했다. YWCA회관이 있는 서울시 중구에만 2곳이 배치되어 운영되었다. <후방전사>의 특수위안대 실적 통계표에 따르면 위안부 1인당 하루 평균 위안한 군인의 수가 6명 이상으로 나온다. 운영방식도 일본군 '위안부'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여성들이 위안부 전용 부대 안에서 공동생활을 했고, 군 보건소 군의관이 직접 성병을 검사했다.

군대 '5종 보급품'으로 전락한 여성들

그렇다면 일본이 이미 패망한 시점에 누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 해방 후 한국군을 창설할 당시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광복군보다는 일본군에 종사했던 한국 군인들과 일본제국의 중국 침략 전초기지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관동군 출신이 주가 되어 한국군을 구성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1대부터 제4대까지 합참의장과 제1대부터 제21대까지 육군참모총장은 모두 일제 군 경력자들로서 친일파가 그대로 군부의 중심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자연히 일본군에서 훈련받고 근무한 일본 군사문화를 그대로 한국군대 안에 전승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군 '위안부'는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 문제와 그대로 직결되어 있던 것이다. 한국군 '위안부' 제도의 창설자 역시 1915년 일본육사를 졸

업하고 육군대령으로 예편한 장석윤이며, 그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다.

한국 군대에 자연스럽게 일본 군사문화가 유입되고 작동되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군 '위안부'로 이어지게 되었다. 김희오 장군과 차규현 장군의 증언에 의하면 중대별 보급품 수령지시가 있어서 가보왔더니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있는 보급품 목록에 제5종으로 명시된 보급품이 도착했다는 것이다. 그 제5종 보급품은 연대 간부들이 부하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발상으로 거금의 후생비를 들여 조달해온 '위안부'였다. 강제 성폭력과 납치, 포로로 끌려와 한국군 '위안부'가 된 한국 여성은 인간이 아닌 제5종 보급품으로 취급되어 물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같은 김귀옥 교수의 한국군 '위안부'에 관한 논문은 2002년 발표되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이토록 무지했을까? 당시 일본 <아사히신문>과 국내 일간지, KBS<9시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던 한국군 '위안부'에 관한 기사는 현재 찾아볼 수 없다. 김 교수가 경남대학교 객원 교수로 있을 때 당시 국방부에서 학교로 연락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학교 측에 한국군 '위안부' 연구를 자제하라고 요청했으며, 그 후 결정적 기록물인 <후방전사>도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사라졌다. 한국군 '위안부' 문제가 부각되는데 불편함을 느낀 정부의 제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 군사문화는 폭력으로 굴복시키려는 전쟁의 야만성을 여성의 몸과 인격에도 가하여 위안부라는 제도를 만들어 냈다. 일제 잔재 청산과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의 억압이 또다시 한국군 '위안부'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정과 사죄가 없다면 그 오류는 반복될 것이다. 아직 존재하는 미군 '위안부'가 군사주의와 가부장적 성문화의 불합리한 결합으로 여성들을 끊임 없이 억압하며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가부장제도와 분단, 전쟁으로 야기된 군사문화의 결합에서 벗어나 전쟁 없는 세상, 자유와 평화가 보장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청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告白하고 100년을 향해 나아가다



올해로 창립 95주년을 맞은 한국YWCA연합회가 4월 20일(목)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기념예배·기념식을 연다.

주제는 '고백'이다. '과거를 돌아보다'는 YWCA 초기정신을 되새기고 회복하는 Go Back이고, '오늘을 고백하다'는 지금의 역사가 있기까지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성찰하는告白이며, '100년을 향해 나아가다'는 100년을 향한 비전과 희망의 행진을 시작하는 Go 100을 뜻한다.

특히 '한국YWCA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라는 제목의告白을 통해 지난 과거를 정직하게 성찰하고, 앞으로 역사에 대한 시대적 책임감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절인 1922년 "암매한 여성사회에 빛이 되고자" 창설된 YWCA가 95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목적에 충실했는가, 기독교여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는가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새롭게 확인하고 다짐한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기념예배는 정운형 한양대Y 회원의 국악찬양에 맞춰 김재화 명예연합위원, 최형선 실행위원, 정유진 실행위원이 회개와 고백의 기도문을 낭독한다. 김형국 나들목교회 목사가 '95주년, 95개항-지금도 지속되는 종교개혁'을 주제로 설교하고, 최선화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장과 이서영 Y-턴 전국협의회장의 헌신과 다짐의 기도로 막을 내린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기념식은 3부로 진행된다. 1부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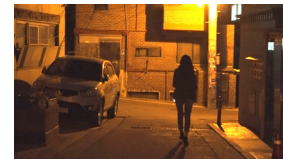
아봄'(Go Back 1922)에서는 이 땅의 아픔과 현실, 하나님의 마음, YWCA 회개를 형상화한 무용극과 종소리 공연이 펼쳐진다. 다음으로 창립 95주년을 맞은 연합회(이명혜 회장), 광주YWCA(민혜원 회장·서옥희 사무총장), 서울YWCA(조종남 회장·양선희 사무총장) 대표들이 '한국YWCA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 전문을 낭독한다.

2부 '오늘에서 내일을 보다'(告白)에서는 이명혜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의 목에 손수건을 묶어 주면서 환영인사를 나누게 된다.

3부 '100년을 향하여(Go 100)'에서는 국내외 인사들의 'YWCA에 바란다'와 95주년 주요 기념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한다. 마지막 순서로 가수 홍순관의 노래, YWCA 회원들의 희망이야기, 참석자들의 100주년 소망 쪽지를 넣은 타임캡슐을 봉인하고 합창으로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막을 내린다.

테보라 토마스 세계YWCA 회장, 후지타니 사토코 일본YWCA 회장, 연합회 사무총장 출신의 1922년생 이희호 여사, 주선에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YWCA가 주관하는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 황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사회적기업 불런컬처 대표인 청년기업가 고다연, 광주YWCA어린이집을 다니는 2012년생 이수민 어린이회원이 영상을 통해 YWCA에 대한 기대를 보내왔다. 

대상은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YWCA 활동가가 뽑은 <JTBC 뉴스룸>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으로 대상은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성평등 부문상은 SBS <SBS 스페셜> '잔혹동화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 생명평화 부문상은 OBS <창사9주년 특별기획> '세월호 그 후, 트라우마는 누구의 것인가', 특별상은 EBS <하나뿐인 지구> '이상한 나라의 죽음-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전국YWCA 활동가들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은 JTBC <JTBC 뉴스룸>이 각각 선정됐다.

추천작품은 모두 103편으로 예전에 비해 대거 늘었으며, 지역방송과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번 시상식은 4월 20일(목) 오전 11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상으로 선정된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는 그동안

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던 노인, 여성, 장애인을 '삶의 존엄성'이란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았다. 신구세대간 갈등과 화해, 여성들이 일생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한 따뜻한 공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억압받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여성 연대로 풀어나가는 모습은 모든 세대에 큰 울림을 선사했다.

성평등 부문상엔 여성혐오 시대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여성의 시각으로 조명한 <SBS스페셜> '잔혹동화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가 뽑혔다. 생명평화 부문상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재난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트라우마 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치유해법을 찾아본 OBS <창사 9주년 특별기획> '세월호 그 후, 트라우마는 누구의 것인가'가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주제로 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다루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EBS <하나뿐인 지구> '이상한 나라의 죽음-가습기 살균제 대참사'가 뽑혔다. 올해 신설된 '전국YWCA 활동가들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은 온라인 투표에 참가한 활동가들의 82%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로 <JTBC 뉴스룸>이 뽑혔다. '최순실 태블릿PC' 연속보도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7시간' 등에 대한 탐사취재로 국정파탄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기독교인에게 여성주의가 필요한 이유

최지영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간사

심각해지는 여성혐오, 교회 성폭력

21세기는 '여성의 세상'으로 불린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황혼이혼이 늘었고, 지금까지 흔하게 행해졌던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와 모독도 범법으로 처벌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모가 무색할 만큼 한국 여성들이 받는 차별, 혐오, 비하, 폭력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84%가 여성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살해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지난해 서울 최고 변화가인 강남역 인근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된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일깨워주었다. 이로 인해 여성혐오, 여성차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공론화되었다. 특히 그동안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교회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터부시될 사안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문직 종사자 성범죄 1위는 성직

자로 나타났다.

올해 창립 95주년을 맞아 '회개와 고백'으로 지나온 역사를 성찰하고 있는 YWCA는 불안한 시대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독교여성주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0주년을 향한 YWCA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자 생명비전연구소 주관으로 '한국YWCA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이 시작되었다. YWCA 안에서 먼저 기독교여성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YWCA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은 2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매달 한 번씩 연구모임을 열고 있다.

'기독교인에게 왜 여성주의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모임에서는 가부장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혐오 문제의 실상을 확인하고, 여성의 힘으로 다시 생명시대를 일구어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이어 3월 두 번째 모임에서는 한국 기독교여성주의 역사에서 '기독교여성들은 어떻게 성차별과 싸워왔나'를 주제로 성차별에 맞선 여성들의 역사



1975년 3.1절 기념 나라위헌 YWCA 대기도회



1984년 UN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YWCA 세미나

를 살펴봤다.

성차별과 싸워온 한국교회 여성들

가부장제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성차별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기독교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남존여비' 중심의 한국 유교문화와 만나면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기독교 문화를 강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화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현실을 낳았다.

한국 여성들은 19세기 말 남성 위주의 전제 봉건주의가 유세를 떨치던 시기 기독교를 만난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름 없는 존재'로서 존재 의미를 상실한 사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된다. 여성들이 이름을 얻은 것은 초기 기독교 여성들에게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여성들은 신앙의 빛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여성해방' 인식의 기틀을 닦았다. 이렇게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여성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동료 여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안방 전도를 시작한다. 이때 일명 '전도부인'이라고 불렸던 한국 여성 교역자들이 세계 교회에 유래가 없는 활약을 하게 된다.

복음이 뿌리내리는 가운데 한국 교회는 '남녀칠세부동석'이란 기존 관습을 벗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 칸막이를 두거나 휘장을 둘러 남녀 성도가 따로 예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런 문화는 여성의 자기인식과 사회 활동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들은 남성의 시각이 아닌 여성의 입장에서 스스로 배우고 익힌 삶으로 성서를 보게 된 것이다.

1910년 조선이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암울한 시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딸들을 공부시키자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때 교육받은 여성들은 이후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기독교 여성의 실천운동 현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한국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 속에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전쟁을 치르며 겪게 된 사회 모순과 아픔,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절대적인 종교를 필요로 하


게 된다. 고통스런 현실에 직면한 교회 여성들은 가난과 절망을 버티게 해주는 삶의 진통제로서 신앙에 의지하는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된다.

그후 오랫동안 기복신앙에 잠들어 있던 한국 교회 여성들을 깨운 것은 바로 민주화운동이었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민주화운동 속에서 여성들은 노동해방과 민족해방을 주장하는데 머물지 않고 여성해방을 갈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 가지 못한다. 독재정권 시대가 길어지면서 교회는 비정치화 되고, '깨어있는' 기독교여성들의 존재는 시대 흐름 속에서 지워지게 된다.

잠들어 있는 교회 여성들을 깨워라

한국YWCA 여성들은 한국의 기독교 여성이다. 기독교 여성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한국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여성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는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과거 교회사에서 증언된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 굴레 속에서도 신앙으로 함께 연대된 여성조직을 결성하여 '여성인 여성을' 전도하거나 구제했다.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성의 힘으로 자립 자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단순한 전도만이 아니라 시대흐름 속에서 교회와 나라, 사회를 위해 앞장서 실천하여 여성운동가로서 발자취를 남겼다.

여성 신학자 메리 헌트가 말하듯 폭력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각개의 개별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상황'(context)이다. 여성혐오, 성차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그저 어쩌다 일어나는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기독교와 신학이 외면해 온 여성들의 '치명적인 일상'인 것이다. 기독교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성차별과 혐오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법, 제도를 통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기독교여성들의 의식변화와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YWCA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은 앞으로 세 차례 모임을 남겨두고 있다. 연구모임이 끝나면 회원YWCA와 교회 안팎으로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씽크머니, 청소년 금융교육에서 청소년 청년운동으로

함희경

한국YWCA연합회 씽크머니자문위원장·실행위원



함희경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YWCA 금융교육연수팀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을 슬로건으로 내건 씽크머니는 씨티재단 후원으로 2006년부터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두 기관의 협력은 12년째로 금융기관과 시민단체의 단일 협력사업이 이렇게 지속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오랜 협력관계에서 쌓은 신뢰와 경험, 전문성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씽크머니는 어떻게 변화 발전할 것인가. 씨티은행과의 협력모델은 지속될 수 있는가. 씨티재단 본사에서 씽크머니 프로그램의 출구전략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2017 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포용 회담(Asia Pacific Financial Inclusion Summit)은 어느 때보다 긴장을 안겨주었다. 한국YWCA는 3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 5명의 씽크머니 금융교육 연수팀을 파견했다. 연합회 씽크머니자문위원장을 비롯해 협력사업팀 실무활동가 홍현정 부장, 이민정 팀장, 청주YWCA 신보미 간사, 서울YWCA 양진화 간사가 참가했다.

'디지털 시대 발전하는 금융포용'(Advancing Financial Inclusion in a Digital Age)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담은 아시아지역 비영리단체, 금융기관, 중앙은행, 정부기관, 다국간 기구, 미시금융기관, 교육기관, 기업출신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각 나라의 금융포용 정책과 이행사항을 나누며 네트워크를 다졌다.

씽크머니자문위원회는 이번 회담 참석을 위해 여러 번의 실무회의와 사전회의를 거쳤으며 마지막 날까지 씽크

머니 영문 홍보지와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노이에서의 모든 일정은 기도로 나눔으로 시작하고, 마감되었다.

이것의 결과이었을까. 홍보부스도 배정되지 않았던 YWCA 씽크머니에 예정에 없던 발언 시간이 주어져 15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씽크머니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씽크머니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더욱이 씨티재단과의 단독 면담에서 씽크머니가 한국 청소년 금융교육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은 물론이고 경제교육지원법 시행으로 한국의 금융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과 최근 출범한 경제교육단체협의회에 YWCA가 가입한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씽크머니는 지난 11년간 해마다 25개~30개 회원YWCA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활동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강사교육을 받은 YWCA 소속 강사는 1,580명이고, 교육받은 청소년은 누적으로 45만명에 달해 청소년회원을 확보하는 계기이자 지역사회에 YWCA를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 씽크머니는 외부기관 협력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알고 돈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청소년 Y-틴과 청년Y의 경제교육운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에서 YWCA 청소년 청년운동으로 발전해가는 씽크머니의 진화가 기대된다.

스팟 인터뷰 | 도시 슈테엠케 씨티재단 프로그램 총괄담당

금융교육의 최종 목표는 금융행동의 변화



홍현정

한국YWCA연합회 협력사업팀 부장

2017 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포용 회담에서 씽크머니 연수팀은 뜻하지 않은 만남을 가졌다. 3월 22일(수) 씨티재단 본사 관계자들과의 단독면담이 요청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면담에 참석한 씨티재단 프로그램 총괄담당인 도시 슈테엠케(Dorothy Stuehmke)와 추가로 나는 이메일 인터뷰다.

국가별 청소년 금융교육 현황은 어떤가

“씨티재단은 씨티가 있는 나라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박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금융교육 수준은 나라마다 다르나 한국처럼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나라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금융생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잘 이용하도록 교육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교육에서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은 꼽는다면

“금융교육의 최종 목표는 금융행동의 변화이다. 낮은 수준의 금융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데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최근 금융포용 이슈가 정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추세인데 금융복지와 경제안정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 섹터만 금융포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섹터간 협력이 필요한데, 정부와 시민사회(NGO)는 서로를 보완하는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NGO가 지역사회와 가까이 일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돕는다면, 정부는 이러한 NGO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관계가 좋지 않을까 한다.”

YWCA와 한국씨티은행의 협력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한국YWCA는 씨티재단과 한국씨티은행의 오랜 파트너이다. 씨티재단은 한국YWCA가 씨티강사교육이나 자문위

원회를 통해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이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650여명의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이 씽크머니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1사1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이 씽크머니 금융교육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 더불어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80여개 학교에 '1사1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은행 중 가장 많은 학교에 좋은 금융교육을 제공했다고 들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협력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YWCA에 감사하다.”

앞으로 씽크머니가 어떻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는가

“씨티재단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지역사회 저소득층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해 가는데 관심이 많다. 이런 점에서 씽크머니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고 체계적으로 교육내용과 방법을 잘 개발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씽크머니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이나 핀테크에 대비한 교육내용 등이 그 사례다. 2017년 시작한 씽크머니 세부 프로그램 중 대학생들의 채무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형식의 청소년 금융포용(Youth Financial Inclusion)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프로그램의 운영효과를 잘 점검하여 더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면 좋겠다.”

“기억하기 위해, 무관심하지 않기 위해” YWCA 청년들 ‘평화비’ 모금에 나서다

문윤희
한국YWCA CSW61 참가단(청년대표)·안양YWCA



평화비 모금을 위한 발표에 나선 청년대표들

95주년을 맞은 YWCA는 전쟁과 인권침해 그리고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평화비’ 건립을 선포한다. 3월 11일(토)부터 17일(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하는 청년대표 4명은 YWCA ‘평화비’ 건립을 위한 씨앗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모금홍보를 위한 발표를 준비할 때는 심경이 복잡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찾았다.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과 상처가 깊게 느껴져 더욱 힘들었다. 이런 큰 아픔을 지닌 분들에게 우리 발표가 오히려 누가 되진 않을까, YWCA가 할머니들의 슬픔을 위로할 자격이 있을까, 자칫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을까.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이 모이는 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하는 것도 걱정되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여성강간, 필리핀 ‘코피노’ 등 우리나라도 부끄러운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례로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성노예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전시 성폭력과 인권, 성평등의 문제를 환기하는데 주력했다. 주제

는 ‘무관심이 폭력이다(Ignorance is Violence)’로 정했다. 일본YWCA가 주관한 2016 히로시마 순례기행에서 느꼈던 내 생각이 반영되었다. YWCA 활동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접할 때마다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의 아픔에 무관심한 것은 그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준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 대부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쟁이나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세계 여성들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는 있지만,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 실천 없는 문제인식은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번

에 호소할 내용이다. 매일 밤 일정이 끝나고 숙소에서 모여 연습을 했다. 길을 걷거나 쉬는 시간에도 대부분을 외웠다. 3월 16일 오전 10시, 발표가 시작되었다. 일본, 홍콩, 미얀마, 네팔 등 각국 참가자를 비롯해 핀란드, 호주의 유엔주재 대사도 참석했다.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핀란드 대사는 한국의 가정폭력 정책을 묻기도 했다. 참석자들이 1달러씩 기부했다. 성폭력과 성노예를 반대하는 세계 시민들의 응원이 고마웠다.

YWCA ‘평화비’는 아직 형태나 설치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모습이든 전시 성폭력 문제를 일깨우고,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기억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피해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관심과 기억이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YWCA가 국제사회에 여성인권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계속 환기하는 것이 얼마나 뜻있는 일인지 깨달았다. ‘무관심’하지 않기 위한 YWCA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

만남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청년들이여, 국제무대를 많이 경험하라



손지수
한국YWCA CSW61 참가단(청년대표)·대구YWCA

제61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가 중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만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사무차장보로 일하던 2013년 국제기구 최고위직 진출로 한국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YWCA 제1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특별상을 받았다. 한국여성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분을 만나니 설레면서 뿌듯했다.

성차별이 심한 시절 어떻게 그 자리에 진출할 수 있었는가?

“몇 십 년 전만 해도 여성차별은 당연했다. 지금 유엔 안에서는 간혹 보이지 않는 차별은 있지만 드러나는 차별은 없다. 남녀평등이 명시돼 있다. 서구지역 출신 비율이 높아 비서구 출신을 먼저 채용하는데, 나는 여성이면서 비서구인이었다. 유엔은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곳으로 또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대화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캐치하는 게 핵심요건이다.”

유엔에서 일하면서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국제문제가 있을 때 각국 대표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유엔의 기본업무다. 우선으로 두는 가치는 인권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한국은 굉장히 독특하다. 짧은 시간에 역동적으로 변하고 성장했다. 전쟁의 폐허터미에서 지금처럼 성장한

모습을 밖에서는 대단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 속을 보면 다르다. 정치지도자들도 사고방식이 우물안 개구리다. 국회의원들이 오면 국제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다행히 젊은 의원들은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의 역동성과 성공에 취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바깥세상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결국 이런 국제무대에 한국 청년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이 답이다. 시간과 돈이 들지만 기회 될 때마다 경험해야 한다.”

청년시절 꿈은 무엇이었는데?

“20대에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유엔과목을 공부했으나 그땐 유엔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다. 1995년 북경여성회의가 큰 계기가 되었다. 평소 당연하게 당하고 있던 성차별 문제를 유엔에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온 세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유엔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 청년시절 시사공부를 열심히 했다. 시사잡지 하나는 꼭 구독했다. 청년들에게 세계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사공부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청년성'을 살리려면 청년부터 키우자

회원YWCA 원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원로에게 듣는다'
이번 호에서는 유은옥 수원YWCA 증경회장을 만났다.



유은옥 수원YWCA 명예이사 약력

- 1991~현재 수원YWCA이사
- 2001~2005 수원YWCA 19, 20대 회장
- 2005년 제1회 수원시 여성상 수상
- 2005~2007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경기본부 공동대표
- 2014~현재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 2015~현재 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 경기도여성평화 합창단 지휘
- 2017~현재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통일나눔 상임대표

편집실

'아나바다' 여왕, 사회문제에 눈뜨다

YWCA와 첫 인연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서울YWCA 회원이라 어릴 때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며 성장했어요. 고등학교 때 Y-틴 활동을 했는데, 연합회에서 박에스터 선생님을 뵈었어요. 그분의 열정과 사랑, 따뜻하고 밝은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강한 끌림을 느꼈고, Y-틴 활동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973년 결혼을 하면서 수원으로 이사와 수원YWCA와 인연이 되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는다면?

“호주제폐지 운동을 할 때 '주부 연극팀'을 만들어 국회 등 전국에서 공연하며 호주제의 부당성을 알렸지요. 2005년 3월 호주제가 폐지됐는데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청소년위원장 시절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작은음악회'를 열었어요. 그때 출연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곤 보람이 컸답니다. 80년대 초 수원 난파 합창제에 참여했는데, 돈이 없어서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참여했어요. 무반주로 '평화의 기도'를 불렀는데 1등을 했던 일도 기억에 남고요. 1994년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이순심 사건에 수원YWCA가 주축이 되어 경기여성연대를 조직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환경, 평화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교회를 통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YWCA 운동으로 실현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별명이 '아나바다의 여왕'이에요(웃음). 옷, 가방, 구두 등 대부분을 아나바다 장터에서 사서 쓰거든요. 아나바다운동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금도 아나바다운동을 실천하고 있어요. 중학생 때 가족들과 4·19혁명 부상자 위문공연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언니, 오빠들을 봤어요. 그때 싹튼 평화의식이 YWCA에서 평화통일운동으로 발전했고,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역할이 주어지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원YWCA 최연소 이사는 대학생

청소년교육도 활발히 펼쳐왔는데 YWCA의 '청년성(Young)'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Y-틴 활동을 거쳐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회장으로 성장한 최선화 학생은 수원YWCA에서 최연소 이사입니다. 기대가 큰 청년인데 YWCA 청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청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수원YWCA는 청소년 비전스쿨, 다솜학교, '3분의 2에게 희망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청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회장재임 기간 수원YWCA 회관건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부속시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1999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관건축을 목표로 세웠어요. IMF(국제금융위기) 직후라서 다들 힘든 상황인데도 이사, 실무자,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지금의 회관을 지을 수 있었죠. 저는 아들 결혼을 위해 만든 제 처음이자 마



2016 여성평화걷기에 참석한 유은옥 증경회장(맨 앞쪽)

지막인 저금통장 만기금액 전부를 회관건축 기금에 내놓은 게 아직도 자랑스러워요.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체육문화센터, 영동청소년문화의집 등 2002년부터 부속시설이 늘어난 것도 지역사회에서 수원YWCA가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1회 수원시 여성상을 받았는데 어떤 활동으로 수상하게 되었는지요?

“사실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수원YWCA가 받은 상입니다. 수원YWCA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결과이지요. 영광스럽게도 제가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수원YWCA가 창립된 지 48년이 됩니다. 50주년을 앞둔 수원YWCA가 어떤 역할을 하며 발전되길 소망하는지요?

“통일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을 키워야 합니다.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평화감수성을 길러주고, 통일의 꿈을 꾸며 준비하는 젊은 지도력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지역에서 50년 역사를 가진 여성단체이자 시민운동단체는 수원YWCA가 유일합니다. 그동안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며 지역 시민사회의 중추 역할을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탈핵, 평화, 환경운동을 적극 펼쳐나가며 조화로운 연대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원지역의 만년니로 발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생태공동체 가치를 되찾는 가르침

이윤경¹⁾
전 IBM 토마스왓슨연구소 연구과학자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편역 이윤경 / 가톨릭출판사 / 5,000원

하느님이 복음을 쓰실 때 God Writes the Gospel

하느님은 복음을 성경에만 쓰지 않으시고
나무들에, 꽃들에, 구름들에, 별들에 쓰신다.
God writes the Gospel not in the Bible alone,
but also on trees, and in the flowers and clouds and stars.
- 마틴 루터 Martin Luther²⁾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준 아인슈타인

1990년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학술지에서 ‘아인슈타인의 우주와 기도’라는 짧은 글 한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빅뱅 우주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카오스 이론, 열역학, 유전학, 진화론, 게놈 등을 포함하여 20세기 과학의 하이라이트를 간략하게 정리하며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의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다는 글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며, 또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우주는 변화를 향해 열려 있으며 가장 사소한 것이 큰 영향을 끼

칠 수 있다는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물질과 에너지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비의 성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요지로 당시 컴퓨터공학자로서 전공분야 외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던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후 현대의 대표적 생태 사상가 중 한 분인 토마스 베리 신부의 생태사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베리는 20세기 새로운 과학적 이론들을 바탕으로 인류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 안에 담아 ‘우주 이야기’를 들려주며 당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story라고 말합니다. 한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이야기 (story)’가 있어야 하는데 인류는 근대화 이후 인간과 자연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이야기를 잃어버렸으며 그 결과가 현재의 환경위기라는 것입니다.

근대화 이전 서양사회는 그리스도교 믿음에 근거한 통합된 세계관, 즉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아우를 수 있는 story를 갖고 있었다고 베리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사고는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하며 막을 내리게 됩니다. 흑사병의 후유증으로 사람들은 이 비극적 세상으로부터 종교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이들과 물질세계를 제어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의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 쪽은 구원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자연세계의 계시적인 의미를 간과하게 되었고, 다른 쪽은 물질세계에 초점을 맞춘 결과 과학만을 신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깊은 적대감으로 서로에게 고립되며 자신들의 이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연과 우주, 그리고 인류에 대해 공유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생명공동체로서 가치들을 잇게 되었으며 이 결과가 오늘의 생태위기라는 지적입니다.

환경위기의 해결책, 생태사상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는 현대과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관이 종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에 가슴이 뛰고 있던, 그러나 이를 일상생활의 삶으로는 연결할 수

없었던 세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주위를 둘러보고 별을 바라보며 감히 지구공동체, 우주공동체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새로운’ 깨우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줌의 흙이 다시 보였고 그 속의 작은 벌레들, 풀잎, 나무, 바위, 이웃, 물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이념으로만 이해되고 있던 추상적 가치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통합 생태론을 제시하며 당면한 환경위기의 주요 원인은 인류가 과학기술을 무차별하게 사용하여 생태계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느님이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이지만 이 엄청난 기술발전이 인간의 책임과 가치관, 양심이 함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생태위기는 현실을 해석하고 부분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으며 우리의 잃어버린 가치와 중요한 목표들을 되찾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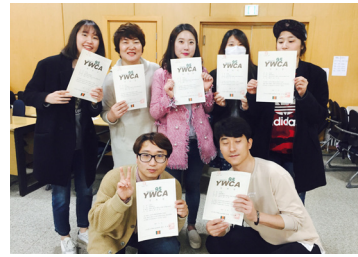
이와 함께 우리는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적 풍요, 곧 그들의 예술과 시, 그들의 내적 삶과 영성에 의지해야 하며 어떠한 학문 분야나 지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태위기의 해결책으로 토마스 베리가 제시하는 생명공동체의 가치, 즉 자연과 우주, 그리고 인류를 모두 아우르는 생명공동체로서 가치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태사상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가치와 중요한 목표들을 되찾는 과정에서 매번 그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보물함이 있습니다. 이 보물함 속에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환경보호를 위한 전통적인 기도와 가르침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Prayers for Our Earth)에 담은 기도와 인용구절들은 그 곳에서 하나씩 꺼내 모아 영어/한국어의 대역본으로 엮은 것입니다. 세계 그러했듯이 이 가르침들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나와 너, 이웃, 모든 피조물들”을 아우르는, 그래서 보다 많은 이들이 ‘생태시민’의 열정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컴퓨터공학과 종교학 박사로서 현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이자 한국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평의원이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편역했다.
2) 독일 아우구스티노회 수사였으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요 인물로 1483년 태어나 1546년 사망했다.

월례아침기도회

4월 월례아침기도회가 4월 3일(월)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임향자 목사(하늘꿈학교 교장)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장 1-5절)는 제목으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한 통일운동의 경험을 나누고,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비전을 나눴다.



무활동가교육이 진행되었다. YWCA 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YWCA 운동가로서 사명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강의, 나눔,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회, 회원YWCA, 부속기관에 근무하는 1년 미만 신입 실무활동가 72명이 참석했다.

제19대 대선 성평등정책 TV토론회

한국YWCA는 4월 14일(금)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성평등정책 TV토론회' 추진위원회 단체로 참여하였다.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TV토론회는 YTN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5명의 대선후보와 토론을 벌이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여성신문 기자단 현장탐방



여성신문 기자단은 4월 10일(화) 연합회를 방문해 '주요여성단체 현장탐방'을 위한 취재를 진행했다. 유성희 사무총장이 YWCA 소개와 역사, 95주년 기념사업을 설명하고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으로 활동을 소개했다. 기자 6명이 참석했다.

5부지역위원회 회원증모워크숍

5부지역위원회는 3월 21일(북부), 24일(경기), 28일(서부, 중부), 30일(동부)에 각각 회원증모워크숍을 열어 회원운동체로서 YWCA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원증모 방안을 모색했다. 회원 YWCA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들은 회원증모의 중요성과 함께 증모 의지를 다졌다.

YWCA 1단계 실무활동가교육

3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버들캠 프장에서 2017 제1차 YWCA 1단계 실

하고자 하는 회원YWCA 임원, 이사, 실무자 등 40여명이 참여해 탈핵 기본지식을 배우는 한편, 탈핵교육 교안 작성 워크숍도 진행했다.

'길위의 평화학교 :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1차 포럼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한 95주년 기념사업인 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포럼단이 4월 6일(목) 연합회에서 발족했다. 회원YWCA 회원, 탈북민, 청년회원 30명으로 구성된 포럼단과 연합회 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인 김귀옥 한성대 교수의 '분단과 전쟁의 한반도, 여성의 삶과 희망'이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1차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단은 앞으로 네 차례 포럼을 더 열고, 10월에 2박 3일간 진행될 '한라산 등반포럼'을 기획할 예정이다.

한양대 선교부 북한어린이돕기 분유기금 전달식

한양대학교회 선교부가 4월 3일(월) 연합회를 방문해 북한어린이돕기 분유기금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영진 한양대학



교회 부목사와 선교분과위원장 강주석 한양대 의대 교수는 "2015년부터 참여해온 YWCA 북한어린이돕기 분유기금 모금활동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제차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



3월 18일(토) 청주YWCA에서 제1차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1월 전국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지역사회와 청년'이라는 전국운동 주제로 각 지역에서 추진할 활동을 공유하고, 대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확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2017 Y-틴 전국간사워크숍



3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Y-틴 전

국간사워크숍이 연합회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YWCA 청소년운동 활성화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Y-틴 행정 프로그램(생활기록부 등재, 국제청소년성취 포상제)을 배웠다.

청년기자단 4월 정기모임



청년기자단 4월 정기모임이 4월 1일(토) 연합회에서 진행됐다. 청년기자들의 온라인 홍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수동 브이랩인포그래픽 소장의 '이해와 공감,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콘텐츠' 특강을 듣고, 취재활동을 공유했다.

2017 다래교실 협약식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은 4월 5일(수) 연합회에서 '2017 다래교실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강정훈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은 씨티재단이 후원하는 후원금 2억 3200만원을 YWCA에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다래교실 우수상 시상식'에서는 우수회

원YWCA에 의정부YWCA, 우수 협력기관에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공공디자인 이즘', 우수 교사에 김미경(충주YWCA)·이재걸(논산YWCA), 우수 학생에 이소향(진주YWCA)·김준겸(논산YWCA)·이주현(청주YWCA)·정보민(안산YWCA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이 선정되었다.

YWCA어린이집 1분기협의회 원장연수

YWCA어린이집 1분기협의회 원장연수가 3월 28일(화) 연합회에서 열렸다. 전국 17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했으며, YWCA다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연수에 앞서 낮 12시 서울 명동 YWCA 회관 앞에서 진행되는 '불의날' 탈핵캠페인에 동참해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을 적극 펼쳤다.

2017년 생명숲돌봄센터 상반기 보육사교육



4월 14일(금)부터 15일(토)까지 버들캠 프장에서 2017년 생명숲돌봄센터 상반기 보육사교육이 진행되었다. 40여명의 보육사와 센터를 주관하는 회원

연합회 소식 4월

YWCA 사무총장이 참석해 생명숲돌봄센터 3대 중점교육인 생활교육, 예절교육, 독서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배웠다.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마음건강 10계명' 특강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도 가졌다.

팔레스타인YWCA-YMCA 'JAI' 대표 방문



팔레스타인YWCA-YMCA가 청년들의 평화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설립한 평화운동단체 JAI(Joint Advocacy Initiative) 니달 아부줄루프 대표와 남아공화국 인권운동가 홀스트 클라인슈미트가 3월 22일(수) 연합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핵무기, 핵발전소가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BDS 운동과 한국YWCA-YMCA 운동의 교류를 통한 협력가능성을 논의했다. BDS운동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인종차별 등에 대항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불매불참(Boycott)·투자철회(Divestment)·경제제재(Sanction) 운동이다. 한국YWCA에서는 탈핵생명위원장인 원영희 부회장과 청년대표 등이 참석했고, 한국YMCA에서는 김용복 생명평화센터 고문과 이충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동정

이명혜 연합회 회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회장 취임 (2017.2~2021.2)
곽지영 실행위원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장 임명 (2017.4)

인사

채용
임경화 간사
법인사무국 전산담당(2017.4.1)
문윤희 청년인턴
정책기획국 홍보출판(2017.4.1)
휴직
박진화 간사(육아휴직)
법인사무국 전산담당(2017.4.1)
박효정 간사(출산·육아휴직)
지역운동국 회원Y협력지원(2017.5.1)
안식휴가
구정혜
법인사무국장(2017.5~6 : 2개월)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7. 3. 1~3.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3. 1~3.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예린,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귀옥,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사라, 김상은, 김선형,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정미, 배정빈, 백보람, 백정미, 백혜진,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인숙, 심선미,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명심,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윤숙, 이은영,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찬진, 이항자, 이희숙, 이화정, 임강숙,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자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채정희, 최수선,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현정, 홍현화, 황홍백	1,963,000
개인기부	김은경, 김정수, 최혜실, 홍수진	144,70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성광교회, 에스더 목장, 장안교회, 유년부, 한양대학교회, 한양대학교회 여성교회	1,290,830
기관, 단체	NH농협은행(명동지점), 르빵(명동성당점), 레오니다스, 마포구청 선교신우회, 명성약국, 알파문구(명동성당점), 에세레 젤라또(명동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298,410
합계		3,696,940

회원YWCA 소식 4월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키다리학교 '즐거운 장터, 가까운 직업들'



3월 11(토) 청소년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키다리학교가 개강했다. 진로교육과 기부장터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2017년 고양YWCA 키다리학교는 다양한 직업군이 통합되는 추세에 맞춰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농업·수공업·마케팅·재무·회계·홍보·기자 등의 직업을 직접 경험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하반기 지역축제에서는 1년간의 직업군 경험을 기부장터에서 통합 체험하고, 수익금 전액은 기부할 예정이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살림돌봄 조리실무과정



3월 13(월)부터 17(금)까지 살림돌봄 조리실무과정을 진행했다. 살림돌봄 과정에 조리를 접목해 기본 살림돌봄 교육, EM을 활용한 환경교육, 조리실습, 집단상담, 서비스 대인관계 등 40시간을 교육했다. 16명이 수료했다.

성남YWCA 이보경 주임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기부



다문화가정의 화합과 기능향상을 위해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홉 가정(총 38명)을 모집해 3월 25일(토) 성남YWCA 강당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윤한중 사진작가와 청소년 아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그 뜻을 더했다. 이날 찍은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각 가정으로 전달된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시민대상 국민주권 특강



분기별로 사회 이슈와 관련한 특강을 열고 있는 수원YWCA는 4월 4일(화)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국민주권 이해와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수원시민과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이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회원YWCA 소식 4월

안산YWCA

문성은 주임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멘토양성과정



안산YWCA '여성과 성' 상담소는 3월 15일(수)부터 24일(금)까지 지적장애 청소년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인 '키움학교' 멘토양성과정을 진행했다. 15명이 수료했으며, 2기 키움학교 학생들의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3·8 세계 여성의 날 '폭력예방' 캠페인



제33회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범계역 로데오거리에서 '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시민들의 폭력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 생각 스티커 붙이기', '비폭력 실천송 함께 부르기'를 진행했다. 어떠한 폭력도 사소하지 않으며, 폭력은 범 죄행위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파주YWCA

서동희 간사

회장 이·취임식

회장 이·취임식이 3월 28일(화) 파주YWCA 교육실에서 열



렸다. 장형근 예랑교회 목사의 설교로 진행된 감사예배로 시작해 김인현 회장의 이임식, 허해숙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이어졌다. 정인철 금촌중앙교회 목사가 축사를 했으며, 회원과 기관단체장 등 55명이 참석했다.

동부

거제YWCA

장미숙 간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3월 9일(목)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이번 사업은 44명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시설 관리, EM 환경지킴이, 실버선생님 매직쇼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 신설된 실버선생님 매직쇼는 어르신들이 마술을 배운 뒤 어린이집을 찾아 마술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구인·구직 여성 만남의 날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월 22일(수) 기업체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여성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39개 업체와 105명의 구직여성이 참여했다. 구직자에게는 구직등록, 이력서 작성, 면접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과 함께 현장면접을 통한 직접채용 등 취업기회도 제공했다. 1년에 4회 실시되며,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1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무료진료 '대구YWCA 착한치과'



대구YWCA '착한치과'는 뜻있는 치과의사들의 재능기부로 매주 화요일마다 탈북민가족, 다문화가족,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치과 진료를 제공한다. 값비싼 비용으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착한치과'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경남대Y '터울거리' 정체성 훈련

마산YWCA 경남대학교 YWCA 동아리인 '터울거리'가 3월 10일(금) 2017년 회원을 대상으로 YWCA 정체성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김혜정 연합회 탈핵생명위원의 '원자력 바로알



기' 강의를 통해 핵발전의 실상을 이해하고, 다음세대와 환경을 위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90명의 대학생 회원들이 참석했다.

부산YWCA

윤영인 간사

김명숙·하선규 명예이사 추대식



김명숙 33대 회장과 하선규 34·35대 회장의 명예이사 추대식이 3월 7일(화) 진행되었다. 부산YWCA에서 반평생 넘게 자원지도자로 헌신한 김명숙, 하선규 명예이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노력에 감사하고, 선후배간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창립 30주년 의류바자회



회원YWCA 소식 4월

창립 30주년을 맞아 3월 27(월)부터 4월 1일(토)까지 사천 YWCA 강당에서 의류바자회를 열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사천YWCA는 30주년을 계기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생명평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양산YWCA

이나라 간사

경력실무사무원 양성교육



양산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경력실무사무원 직업훈련과정을 열었다.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정보기술) 자격증을 포함해 컴퓨터활용능력2급, 전산회계2급 자격취득을 목표로 3월 9일(목)부터 6월 5일(월)까지 총 240시간 동안 진행된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신임이사, 중견실무자 교육



3월 6일(월) 울산YWCA 강당에서 신임이사, 중견실무자 교육이 진행되었다. 김혜경 부산YWCA 전 사무총장이 'YWCA 목적과 중점운동의 이해'를 주제로, 김익중 동국대 교수가 '탈핵운동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진주YWCA

고명정 팀장

3.8 세계여성의 날 진주여성대회



진주YWCA를 비롯한 진주지역 8개 여성단체는 3월 8일(수) 제109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진주여성대회를 열었다. 80여명의 참석자들은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공연과 차별풍선 터트리기, '내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 설문조사 결과발표 등을 통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진주여성민우회가 주관한 제13회 진주여성평등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수상했다.

창원YWCA

이아름 간사

우리 쌀을 위한 백설기 DAY!



기업 상술에서 시작된 '화이트데이'를 우리 쌀을 기억하는 날로 만들자는 취지로 '백설기 DAY!' 행사를 열었다. 창원YWCA는 3월 14일(화) 농협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창원중앙고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백설기를 나눠주고, 우리 쌀을 애용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



포항YWCA는 포스코1%나눔재단 지원으로 포항고, 포항동성고, 포항여고에서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포스코 임직원과 포항YWCA 활동가들이 우리 쌀로 만든 떡과 우유를 나눠주고, 아침식사·인스턴트식품 섭취빈도 설문조사를 하며 청소년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렸다. 포항시청, 경북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각 학교 교사, 학생들이 참여했다.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사랑의 세!세!세!



강릉YWCA 가족복지위원회는 3월 6일(월) 주문진요양원에서 봉사활동 '사랑의 세!세!세!'를 진행했다. 20여명의 어르신들이 노래 부르기와 자원봉사자들의 마술쇼 재능기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해YWCA

전민지 간사

회장 이·취임식

3월 9일(목) 동해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회장 이·취

동해YWCA 제14·15대 회장 이·취임식



임식을 진행했다. 전경애 전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해YWCA를 이끌 구애심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송정미 CCM 가수의 감사나눔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대학생소비자 캠페인



3월 16일(목) 경동대학교를 찾아 대학생소비자 캠페인을 벌였다. 대학생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질을 높이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에는 속초YWCA 이사와 실무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인천YWCA

한혜선 부장

'에스터 싱어즈' 모임



노래봉사를 원하는 55세 이상 기독교여성들로 이루어진 '에스터 싱어즈' 첫 모임이 3월 2일(목) 인천YWCA 회관에서

회원YWCA 소식 4월

열렸다. 윤혜경 인천재능대학 교수가 재능기부로 음악지도를 담당한다.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인천YWCA 여성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춘천YWCA

육여진 간사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 동아리 발대식



춘천YWCA가 운영하는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3월 25일(토) 17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2017 동아리 발대식을 진행했다. 청소년 20명이 17기 청소년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5개 청소년동아리(300명)가 소속 동아리로 인준받았다. 조영윤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어르신과 신나는 노래마당



광양YWCA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3월 11일(토) 뮤지션 음악봉사단과 어르신(65세 이상 저소득층)이 함께하는 노래마당을 열었다. 밴드의 흥겨운 멜로디와 가락에 맞춰 댄서를 자처한 어르신들과의 호흡으로 웃음꽃이 만발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시민들과 소통하는 봄장날



광주YWCA는 봄을 맞아 3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봄장날을 열었다. 1천여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YWCA가 직접 만든 김치를 비롯해 지역 농수산물, 축산물과 의류, 생활용품 등을 선보였다. 봄장날은 광주YWCA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나눔터로 자리 잡고 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서부지역 회원증모워크숍



남원YWCA 이사들과 실무자들은 3월 28일(화) 서부지역 회원증모워크숍에 참석했다. 광주YWCA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바라보며 사랑하고 껴안는다'는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한 사람이 소중한다는 마음으로 회원증모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세계여성의 날 대학생 캠페인



자원봉사자 15명은 3월 8일(수) 목포과학대학교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여성의 날의 뜻을 알리기 위한 전단지과 직접 만든 꽃반지를 나누어주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세계여성의 날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여성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궤기한 날을 기념해 생겼다. 목포YWCA는 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중국어 강좌



서귀포YWCA는 3월 17일(금)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사무실에서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어 강좌를 개강했다. 지역시장 상인들이 급증한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5월까지 열린다. 상가별로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천YWCA

추효인 간사

어르신 위한 사랑나눔봉사



순천경찰서와 새터민·순천보안협력위원회는 3월 20일(월) 순천YWCA가 운영하는 해피누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나눔봉사 활동을 펼쳤다. 삼계탕과 간식을 제공하고, 위문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새터민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함)

여수YWCA

박선주 간사

평화의 소녀상 제막



3.1절 98주년을 맞아 3월 1일(수)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옆 평화공원에서 '여수시민이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지난해 5월 발족된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주도한 여수YWCA에서는 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펼쳤고,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익산YWCA

장윤미 간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익산YWCA를 비롯한 30여개 지역 시민단체로 이뤄진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3월 8일(수) 익산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 계획을 밝혔다. 익산 4.4만세운동을 기념해 4월 4일 '평화나비 음악회'를 여는 등 8월 15일 광복절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

회원YWCA 소식 4월



립되도록 모금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번 활동으로 익산 시민들의 평화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Y-틴, 대학·청년Y 인준식



4월 1(토) 전주YWCA 회관에서 Y-틴과 대학·청년Y 인준식이 열렸다. 대학생 봉사활동 동아리 '들무새', Y-틴 클럽 '도로시'를 비롯해 기린초, 동중, 영생고 등으로 구성된 'YP'(Youth Patrol 학생순찰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들은 올해 Y-틴 중점운동 주제인 '청소년 인권-인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YWCA

이유리 간사

여성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여성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2017 여성인재아카데미'가 3월 22일(수) 롯데시티호텔 문화센터에서 제주YWCA 실무자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직내 여성리더의 정체성과 신경영마인드 탐구,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소통 리더십, 동반 성장을 위한 멘토링과 코칭 비



법 등을 이룬, 실습, 토론으로 교육했다. 여성인재아카데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모두 9회 진행하는 강연프로그램이다. 제주YWCA가 첫 강연을 주관했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다래교실 개강



논산여성 21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3월 24일(금) 다래교실을 개강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게임과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듣는 것으로 첫 마당을 열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시대 청소년들의 주체적 인 진로모색을 돕기 위한 다래교실은 체계적인 직업기술 교육, 체험활동으로 비전수립과 취업에 필요한 직업역량을 쌓게 된다.

대전YWCA

이다정 간사

상반기 Y-틴 워크숍

3월 4일(토) 대전YWCA 대강당에서 2017년 상반기 Y-틴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Y-틴 임원과 회원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Y-틴 중점운동 주제인 '청소년 인권-인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를 교육하고, 활동방향을 모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복례 대전YWCA 청소년위원회 위원이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연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자원지도자 연수



3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1박2일간 제천 ES리조트에서 자원지도자 연수를 진행했다. YWCA 목적문과 YWCA 운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이사의 역할, YWCA 공동체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YWCA

정상란 팀장

세계기도일 예배



올해로 129주년을 맞는 세계기도일 예배를 3월 3일(금) 천안침례교회에서 진행했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세계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세계평화와 화해를 위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함께 기도하는 날이다. 올해는 특별히 필리핀 교회 여성들이 '차별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예배문으로 200여명의 여신도들이 마음을 모았다. 천안YWCA는 2017년부터 충청지역 세계기도일 예배를 주관한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신임 자원활동가 교육



신임 자원활동가 교육이 3월 23일(목)과 29일(수) 두 차례에 걸쳐 청주YWCA에서 진행되었다.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활동가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YWCA 헌장과 YWCA 목적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YWCA


김세희 팀장

필리핀 여성 인권 위한 기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3일(금) 충주서남교회에서 제129주년 세계기도일 예배를 진행했다. 올해는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필리핀 교회 여성들의 기도문과 박유철 충주서남교회 담임목사 설교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필리핀 여성들의 차별 폐지와 인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다.

5월 · May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근로자의 날	2 •광양Y 성평등교육	3 석가탄신일 •남원Y 청소년어울림 한마당	4	5 어린이날 •익산Y 어린이날 큰잔치	6 •창원Y 청소년어울림 한마당
7	8 •천안Y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9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10 •목포Y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	11 •고양Y 성인지교육 '대림에서 공존으로' •포항Y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12 •마산Y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안산Y 4.16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	13 •성남Y 두레여행 •수원Y 수원 Y-틴 인준식
14	15 •제2차 '일위의 평화 학교' 포럼 •남양주Y 아가들보미 양성교육 •안양Y 성평등 모니터 단 양성교육 •제천Y 건물관리원 교육개강 •춘천Y 시설관리원 교육개강	16 •광주Y 시민포럼	17 •대전Y 회원증모 결과 보고회 •서귀포Y 시민평화 아카데미 개강	18 •씨티강사 교육	19	20 •2017 여성평화경기(WPW) •울산Y 대중교통 캠페인 '환경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인천Y 청소년어울림 마당 •청주Y Y-틴 인준식 및 Y-틴의 날
21	22 •원주Y 전문미화원 교육	23 •진주Y 회원증모 발대식	24 •2017 여성평화 심포지엄	25 •신임이사 교육 •제4차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 •동해Y 바자회 •여수Y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26	27 •제2차 Y-틴 중앙 임원회 •제7차 대학·청년 위원회 및 제2차 대학·청년Y 중앙임원회 •거제Y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대구Y 사랑의 카부츠 베품시장 •전주Y 1일 가족성장 캠프
28	29 •제2차 서부지역 위원회	30	31			

2017.1.1.

재가치료 요양비 혜택이 늘어납니다



요양비란?

가입자 또는 피양자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예) 가정간호·인공호흡기 대여, 자가도뇨·카테터 구입비용 등

요양비 급여확대 주요내용 (2017년 1월 1일 시행)

질병약화 예방 및 생명유지 등을 위해 재가치료 시 필요한 기기대여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확대 지원합니다.

- 01**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신설)
기준금액 월 20만원 (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
- 02** 기침유발기 대여료 (신설)
기준금액 월 16만원 (대여를 월 중에 시작 또는 종료한 경우 일할 계산)
- 03**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카테터) 급여대상 확대
(중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확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포함)
* 기준금액 1일 9,000원 (카테터 1일 6개 한도) ... 현행 선천성과 동일
- 04**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개선
카세트, 배액백, 카테터말단페색기(미니캡) 1일 1개씩 지급
* 기준금액 상향: 5,640원/일 → 10,420원/일



요양비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양자)로서 해당 요양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공단에 등록된 제공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을 대여·구입한 경우에 지원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요양비 청구

급여대상자 등록	처방전 발행 및 기기대여·소모성 재료 구입	요양비 청구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필요)로 제출 * 산소치료 및 자동복막투석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전문의가 요양비 처방전 발급 • 환자는 등록된 업소에서 필요한 기기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 구입 	기기 대여료/소모성 재료 구입비 청구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② 요양비 처방전 ③ 세금계산서 ④ 표준계약서(산소치료·기침유발기)

요양비 지원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요양비 급여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www.nhis.or.kr